

AIDS 檢診 확대

하 87. 9. 11

유형업종사자 全員 年2回 실시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AIDS 예방법에 AIDS 양성반응자와 환자를 격리보호할수 있도록한 규정에 맞춰 내년중 AIDS보호진료소를 신설키위 한 예산을 반영키로했다.

한편 보사부는 전국 13개 시도 보건연구소에 西獨에서 들여온 최신 AIDS 검사기기인 아이자프로세스II를 한대씩배정, 각시도 보건연구소가 현 청검사를한후 가양성반응자를 국립보건원에 보내 최종확인을 거치도록했다.

서울車輛 60만대 야간 운행시간 9萬1千여

서울시내 차량이 금년들어 8개월동안 무려 6만여대나 늘어나 차량보유대수는 8월 말현재 59만 2천 6백 81대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경우 서울시내 차량보유대수는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대에 육박할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시에의하면 8월 중 차량증가대수는 모두 1만 9백 11대로 말소·전출을 빼고도 4천 7백 14대가 증가했다. 지난 8월에 신규등록한 차량이 모두 9천 1백 4대로 이 가운데 승용차가 6천 2백 5대, 화물차 1천 7백 22대, 버스 1천 2백 5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40만 3천 4백 16대, 화물차 12만 8천 8백 14대, 버스 5만 8천 6백 11대, 특수차량 1천 8백 40대 등이다.

네온사인 設置허가 鍾路 3가동 6곳에

지난해 첫선을보인 초대형 옥상네온사인광고관이 서울시내번화가 6곳에 또 설치된다.

보사부는 10일 내국인끼리 관계로 AIDS 감염자가 발생할에 따라 외국인상대 특수 검진소에 한정해온 검진사를 전국 의료기관 접객업소 종사자 14만 여명 전원에게 확대 시키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를 해 술집·다방·안마시술소 사우나탕 등 유흥접객업소종사자 중 성병검진대상자에게 발하는 전각수첩(보건증)의 청검사란중 성병항목에 AIDS를 추가하고 매년 2차 청검사를 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유흥업소에 취직인 외국인 1백여명(공식업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